

가을 ‘남도의 맛·멋’...해남미남축제로 오세요

31일~내달 2일 두륜산 도립공원

먹거리·농수특산물 등 한자리에

가수 공연·체험·이벤트 등 다채

가을이 무르익으면 해남은 맛으로 물든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11월2일 까지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2025 해남미남(味南) 축제가 열린다. 해남미남축제는 해남의 풍부한 농수특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해 맛있는 해남, ‘미남(味南)해남’의 맛과 멋을 알리는 행사로 매년 가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해남의 맛에 물든다’를 주제로 해남 14개 읍·면 주민들이 대표 농수산물과 음식 등을 선보이며 축제장을 행진하는 ‘특산물 뽐내기 퍼레이드’가 미남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린다.

개막식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해남의 대표 먹거리인 해남8미(八味) 선포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남8미로 선정된 8가지는 ▲해남식 닭코스 요리 ▲대흥사보리쌀밥 ▲해남김쌈 삼치회 ▲해남황칠요리 ▲땅끝한우요리 ▲해남밥상 ▲여름 갯장어 ▲고구마디저트 등 음식이다. 올해 해남미남축제의 주제는 ‘대표 명품 수산물 ‘해남김’으로 채워진다. 해외에서도 인기있는 K-먹거리의 대표주자인 김의 역사와 재배과정, 가공식품 현황을 전시하는 김 정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11월1일 정오부터 한 시간 동안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해남8미를 속 재료로 해 나만의 김밥을 만들어볼 수 있는 미남김밥 팝업존도 운영된다. 축제기간 동안 해남군수협에서는 조미김 등 김 가공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남



2024 해남미남축제 ‘515 김치비빔’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버무린 김치를 들어 보이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김 반값전’도 갖는다. 특히 올해는 해남백반을 브랜딩한 ‘해남밥상’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해남밥상관이 운영된다. 해남의 농수특산물과 전통 식문화를 현대적으

로 해석한 ‘해남밥상’과 ‘해남 밀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 등 250명이 참여해 해남

배추로 김치만들기를 체험하는 515김치비빔을 비롯해 김 떡국나눔, 추억의 구이터, 막걸리타래 일관 등도 운영된다. 관광객들이 해남의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미남푸드관과 주전부리관이 운영돼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30여개 프로그램 중 20여개 프로그램에 군민이 직접 참여해 개막식 퍼레이드, 미남 지역예술 한마당, 오기택 가요제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보조무대에는 2025 평생학습축제와 국화존의 어린이 놀이터가 3일간 운영되며 행사장 일원에 색색으로 수놓은 땅끝 국화향연도 열려 가을 정취를 한껏 풍성하게 하게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밤,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축하쇼와 낭만콘서트,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군민 숙원...문화예술회관 건립 ‘탄력’

행안부 중투심 통과...2028년 완공

300억원 투입 500석 대공연장 조성

영암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조감도)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승인하는 행안부의 절차로, 심사 통과를 계기로 영암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게 됐다. 군은 내년부터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착공에 돌입할 계



획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지는 영암읍 교동지구 내 8천236㎡ 부지로, 연면적 4천㎡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들어선다. 대공연장과 전시실, 연습실, 주민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돼 지역 예술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동안 영암군에는 500석 이상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없어 수준 높은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마련과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회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러한 군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규모와 예산을 조정하며 정부를 설득해 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문화예술회관은 군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내실 있는 건립을 통해 군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어린이집 꿈나무 큰잔치’ 성황

12곳 어린이집·학부모 한자리

신안군은 26일 “지난 26일 제2회 신안군어린이집 꿈나무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신안군민체육관에서 관내 12곳의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별 개별 행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함께 모여 재물잔치와 가족 체육대회를 함께 즐기는 통합 축제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아해읍 여성댄스팀 ‘블랙슈즈’의 트롯댄스 공연이 손자·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관객의 큰 호응을 얻

었다. <사진> 또한 관내 9개 여성단체가 장난감을, 지역 업체가 과자 세트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 보육 공동체 축제의 장이 됐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을 위해 힘써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신안을 고향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 기자

‘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 중투심 통과

300억 투입 화동관광지 개발

‘진도산해도경(珍島山海圖景)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추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산해도경(山海圖景)’은 산과 바다, 사람이 어우러진 진도의 아름다운 절경을 의미한다. 진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해 고군면 화동관광지 일대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옛 홍주하루스 철거 후 ‘하늘길 전망대’ 신축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을 통한 융복합문화공간(웰컴센터)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하늘길 전망대는 진도의 해안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진도군은 오는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와 연계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운영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진도 관광의 새로운 도약이 본격화됐다”며 “2026년 착공을 향해 차질 없이 준비해, 진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대표 관광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무안읍사무소 ‘무인 부동산등기 발급’

무안군은 26일 “무안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위해 군청이나 등기소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군민들이 가까운 읍사무소에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등기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 민원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재 무안군에는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등기 발급이 가능한 곳이 1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됐다. /무안=김상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1층에 있는 발라소플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1만명 돌파

지역경제 효과 181억...치유산업 확대

완도군은 26일 “완도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이 지난 21일 기준 1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센터를 비롯해 청산 치유공원, 노르딕 워킹, 해안 치유의 숲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누적 58만명에 달하며, 완도가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3천6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33% 증가세를 보였고, 한국관광공사 기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81억원으로 분석됐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서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피니티풀 등 시설 확충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만성질환자·고령자 등을 위한 ‘해양치유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장기형 치유 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10년간 추진해온 해양치유산업이 완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치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 농특산물, 전국 유통 판로 확대 시동

郡, 바이어 초청 품평 상담회

25개 업체...유통·판매 논의

영광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 유통망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바이어 초청 품평 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영광군이 주최하고 ㈜역심플러스가 주관했으며, 보리울 소속 12개 보리 가공업체와 영광 농특산물 작목반 등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영광 보리산업 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품평 상담회에는 롯데마트, 우체국쇼핑

등 전국 주요 유통사 바이어 11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참여업체들이 미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품의 특성과 경쟁력을 소개했으며, 바이어들은 직접 시식과 체험을 통해 현장 반응을 확인했다. 2부에서는 바이어 개별 집중 상담회가 열려, 유통·판매 전문 MD 및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과의 1대1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상품성·패키지·가격 경쟁력 등 실질적인 유통 연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참가업체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영광의 건강한 식품과 우수한 특산품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판로 지원, 공동마케팅, 품질고도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